

세계적 작가들 광주서 아시아 정신 공감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내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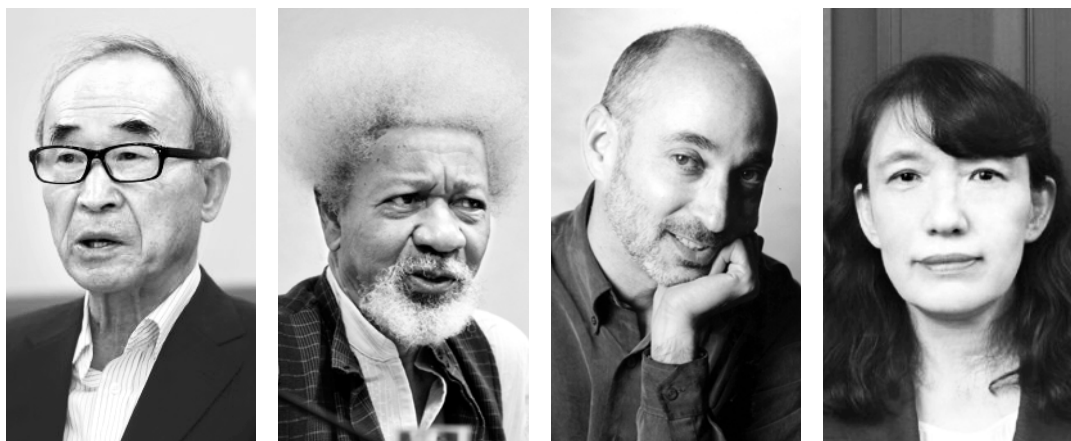
11월4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웰레 소잉카 등 세계거장들 강연
문학상 시상·작가교류 기행도

“한국 시인이 아시아를 향해 부른 최초의 노래는 ‘아시아의 밤’이었습니다. 국경 너머를 짙은 어둠으로 생각하는 저 옛날 한국인들의 감정은 친구도 이웃도 보이지 않는 식민지를 겪으며 습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과 분단과 독재 속에서 시를 배우고, 무한경쟁으로 가득 찬 문명과 제도 속에서 사랑을 키우며,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이념의 감옥을 박차고 나온 세상의 모든 살아 있는 정신들과 손을 잡고자 꿈꾸어왔습니다.”(‘아시아문학페스티벌 취지문’ 중)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웰레 소잉카 등 세계 문호들과 아시아 작가들, 국내 작가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1일 막이 오른다.

‘아시아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4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서 열리는 문학페스티벌은 1일(오후 2시) 5·18민주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장 고은)은 아시아의 역사적 상처와 기억들을 치유하고 승화하는 새로운 시민 축제를 계기로 아시아 각지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암담한 식민지 시절 한국 시인이 아시아를 향해 부른 최초 노래는 ‘아시아의 밤’이었다. 3·1운동 직후 현실을 ‘폐허’로 인식한 상황에서 공초 이상순이 노래했던 ‘아시아의 밤’



고은 웰레 소잉카 잭 로고우 사가와 아키

은 1세기 뒤 한국 문인들이 앞장서 새로운 아시아 정신을 구현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축제에는 1986년 아프리카 최초 노벨상 수상 작가인 웰레 소잉카를 비롯한 미국 시인이자 극작가 잭 로고우, 남아공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브라이언 바흐, 스페인 국가시인상을 수상한 안토니오 폴리나스 등 세계 거장 5명이 참여한다. 또한 노이슈타트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시인 뉘뉘, 일본 사회파 문인으로 일본시인협회상을 수상한 사가와 아키, 정치적 이유로 수감생활을 했던 이란 시인 샴즈 랑루디 등 아시아 작가 5명 등도 참석한다.

한국의 문인으로는 고은 시인과 현기영 작가, 최원식 평론가, 이시영·송경동 시인 등 20명이 참가해 대축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1일 참가자들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아시아문화전당 투어, 초청 작가 환영리셉션이 예정돼 있다. 2일에는 세계거장 특별강연 ‘낮은 목소리 큰 질문’(컨퍼런스홀)의 순서로 강연이 이어진다. 남아공의 시인 브라이언바흐의 ‘혼

돈의 세계를 뚫고가는 시-현재’에는 몽고의 우리양카이, 한국의 조진태 시인이 패널로 나선다. 특별공연(극장2)으로 나운선과 고은의 노래와 시의 하모니인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가 마련돼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3일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날로 무등산 서석대, 소쇄원 등 전라도 기행이 실시된다.

문학페스티벌 본 대회인 ‘아시아의 아침’(컨퍼런스홀)은 4일에 진행된다. 고은의 대화사, 문체부장관 도종환 시인의 ‘아시아의 아침을 위한 축사’, 웰레 소잉카의 메시지, 아시아문학상 시상식, 축하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오후2시30~5시30분) 노벨상 수상작가인 웰레 소잉카의 기조강연(컨퍼런스홀) ‘아프리카가 아시아에게’, 고은과 웰레 소잉카의 대담 ‘해돋이가 당신의 등불을 끄게 하라’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해외 초청 작가들의 소품 전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 환담 등이 펼쳐지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굿바이 DJ”

‘옥중서신’ 각색 ‘...프레지던트’
11월1~3일 광주서구문화센터



극단 ‘달’ 출연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굿바이, 마이 프레지던트’가 무대에 오른다.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2일~3일 오후 4시,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대공연장.

극단 ‘달’이 올리는 이번 작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옥중서신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사형수 시절 육군 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 29통으로 엮여져 있다. 이번 공연은 청주교도소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대중 역에 강희만이, 이희호 역에는 이나경, 오대중 역에는 박석현, 이정남 역에는 서민

우가 등장한다. 이밖에 이광용, 양한승 등이 출연하며 연출은 박현철이 맡았다.

극단 ‘달’은 2016년에 만들어졌으며 극단 배우와 스태프 모두 연극 창작 및 기획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여 나아가고 있는 단체다.

이번 연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서구문화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 주관한다. 입장료 1000원. 문의 062-226-203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사진치유 프로그램 2기 참여자 7명 모습.

〈광주트라우마센터 제공〉

셔터로 어루만진 오월 생채기

11월1일 ‘...기억의 회복2’ 발간 기념식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오월광주치유사진집-기억의 회복2’ 발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11월 1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다목적 강당. 이번 행사는 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됐다.

‘오월광주치유사진집-기억의 회복2’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진행된 사진치유 프로그램 2기 참여자 7명의 작품을 엮어 만든 책이다.

이번 사진집에 작품을 실은 사진치유 참여자는 5·18구속부상자회 소속 곽희성, 박갑수, 서정열, 양동남, 이무현, 이상진, 이행용 씨다. 작품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청 갤러리에 전

시되기도 했다. 서정열 참여자는 “고통의 기억과 대면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곳을 찾았다”며 “트라우마 기억과 대면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카메라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지난 2012년 개소해 올해 5주년을 맞았다.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담, 예술치유 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치유 프로그램 3기는 내년 3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문의 062-601-197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 1년 결실 ‘어울마당’

전남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발표전
10월31일~11월19일 나주·목포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상)이 주최하는 ‘2017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결과 발표전’인 ‘어울마당’이 오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전당과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1부는 나주빛가람전당에서 31일부터 11월 13까지 특목특는 즐거움을 전하는 ‘사이다’ 주제로 열린다. ▲ 창작공간 결과 발표전 ▲ 문화예술 포럼 ▲ 소소한 나눔 ▲ 아트 컨설팅&토크 콘서트 ▲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기획전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11월 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어서 ‘아트 컨설팅&토크 콘서트’행사가 펼쳐진다. 전남 예술가들의 작품 이야기와 방향을 나누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개막식 전에는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예술인과 전문가들의 포럼이 예정돼 있다.

무지개다리사업 ‘소소한 나눔’ 프로그램은 오후



지난해 진행된 ‘어울마당’ 모습.

2시부터 진행된다. 체험, 공연, 퍼포먼스 위주로 펼쳐지며 참여자들과의 소통·교류를 위한 시간이다.

어울마당 2부는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청춘(예)전’ 주제로 진행된다. ▲ 목포산보자 ▲ 청년남도 포럼 ▲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결과 발표전을 비롯해 청년문화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23회 광주미술상 공모

다음달까지 후보자 접수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배동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에 열의를 다하는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23회 광주미술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광주·전남 출신 및 5년 이상 거주하는 만28~45세 미만 청년작가 또는 단체로 광주미술상 운영위원, 작가 본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 된 자다.

오는 12월 6일 광주미술상운영이사회 서류심사에서 후보자 3명을 선정, 당일 오후 3시 프리젠테이션 설명 후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광주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창작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광주·전남에 연고 둔 원로부터 중년까지 선배 미술인들이 후배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결성됐다.

첫해에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가 수상했으며 이후 송필용, 주재현, 이준서, 이이남씨 등이 상을 받았다. 문의 010-2608-27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i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i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럽다.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불맛)이 살아있다.
- ▶ 방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뷔시터, 야유회
- ▶ 팬션/콘도
-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